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유 경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 윤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유 경

인 준 서

김유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여, 예술분야의 전반에서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술 분야에서도 단일체계에 반대하여 다양한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더니즘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으로써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파괴, 동일성과 일원성을 해체하여 다양한 양식과 주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져왔다. 오늘날에는 문학, 건축, 음악, 무용, 패션, 미용,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져 새로운 디자인 재해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이크업 분야와 접목시켜 하나의 예술 가치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이 드러나는 패션 디자이너인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활용하여 아트마스크를 제작함으로써 아트마스크가 메이크업 디자인의 한 분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장르간의 융합을 통해 아트마스크 디자인 개발에 다양한 시도의 계기를 만들어 메이크업 분야의 조형적 예술 가치는 높이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선행논문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고, 다양한 소재와 조형적 기법을 활용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특성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알아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술, 패션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대중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

호작용 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간의 융합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특성을 다원주의, 상호텍스트성, 몰형식성, 혼성모방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마틴 마르지엘라의 활동 내용을 알아보고 그의 신념을 누구에게나 창작의 기회를 제공, 익명성을 통한 상업화 비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작품적 특징을 마틴 마르지엘라의 주된 기법인 리사이클링 패션(recycling fashion)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의 특성을 다원주의, 상호텍스트성, 몰형식성, 혼성모방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 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의 소재인 스타킹과 속눈썹을 중첩시켜 익명성과 소재의 다양성을 나타내어 다원주의를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리사이클링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잡지를 사용하여 다수의 양식이 서로 공존하는 다원주의를 나타내었다.

작품 III은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소재인 수염, 레이스, 허리띠 등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성의 혼합을 나타내는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V는 비닐로 된 에어캡의 투과와 반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다의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소재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내었다.

작품 V는 의복의 조형개념을 파괴한 것과 같이 얼굴의 조형개념을 파괴하여 눈을 평면적이면서 비대칭으로 배치하여 몰형식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VI은 패션의 구성법을 무시한 드러난 솔기, 지퍼 등을 오브제로 이용하고 마스크의 형태 또한 변형시켜 미완성과 부조화를 나타내어 몰형식

성을 나타내었다.

작품 VII은 과거에 유행한 파워숄더를 차용하여 둥근 형태의 마스크를 사각 형태로 바꿈으로써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복고적 요소를 나타내어 혼성 모방을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은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차용해 민속성, 지역성, 토속성 등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혼성모방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예술사조와 패션, 아트마스크라는 분야가 어우러져 새로운 융합 문화 예술작품으로써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전시와 더불어 재료의 한계와 표현의 범위를 뛰어넘어 아트마스크 디자인 연구에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포스트모더니즘	5
2. 마틴 마르지엘라	24
III. 작품제작	39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39
2. 작품 제작	41
IV. 결론	6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19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	40
<표 3>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42
<표 4>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45
<표 5>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48
<표 6>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51
<표 7>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54
<표 8>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57
<표 9> 작품 VII 디자인 이미지.....	60
<표 10> 작품 VIII 디자인 이미지.....	63

그림 목 차

<그림 1> 앤디 워홀 「200개의 수프 깡통」	12
<그림 2> 앤디 워홀 「마릴린 먼로 2면화」	12
<그림 3> 마르셀 뒤샹 「샘」	12
<그림 4>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2
<그림 5> 장 폴 고티에 「마돈나 의상」	16
<그림 6> 장 폴 고티에 「2010 S/S Paris」	16
<그림 7> 알렉산더 맥퀸 「2001 F/W Paris」	16
<그림 8> 알렉산더 맥퀸 「2005 S/S Paris」	16
<그림 9> 마틴 마르지엘라 「8개의 양말로 만든 블라우스」	28
<그림 10> 마틴 마르지엘라 「여행용가방으로 만든 재킷」	29
<그림 11> 마틴 마르지엘라 「2003 S/S Paris」	29
<그림 12> 마틴 마르지엘라 「1999-2000 A/W」	29
<그림 13> 마틴 마르지엘라 「2007 S/S Paris」	29
<그림 14> 마틴 마르지엘라 「1909-1990 A/W」	32
<그림 15> 마틴 마르지엘라 「2008-2009 A/W」	32
<그림 16> 마틴 마르지엘라 「2009 Fall」	32
<그림 17>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32
<그림 18> 마틴 마르지엘라 「2011-2012 A/W Paris」	34
<그림 19> 마틴 마르지엘라 「2009 Fall Paris」	34
<그림 20> 마틴 마르지엘라 「2006-2007 A/W Paris」	34
<그림 21> 마틴 마르지엘라 「1990 S/S Paris」	34
<그림 22>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36

<그림 23>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36
<그림 24>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36
<그림 25> 마틴 마르지엘라 「2005-2006 A/W」	36
<그림 26> 마틴 마르지엘라 「2008 Fall Paris」	38
<그림 27> 마틴 마르지엘라 「2010 Fall Paris」	38
<그림 28> 마틴 마르지엘라 「1992 S/S」	38
<그림 29> 마틴 마르지엘라 「2010 A/W」	38
<그림 30> 작품 I	43
<그림 31> 작품 II	46
<그림 32> 작품 III	49
<그림 33> 작품 IV	52
<그림 34> 작품 V	55
<그림 35> 작품 VI	58
<그림 36> 작품 VII	61
<그림 37> 작품 VIII	64

I. 서론

현대에는 과거와 달리 창의적이고 독특한 상황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 및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가치와 사회사조에 적절히 적용되기도 하고, 반발이나 거부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를 도모하는 선구자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다¹⁾.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해 단순한 형태의 미적 규범이 창출되었고 엄격한 생산원리에 입각한 모더니즘 양식이 형성 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변화되었다²⁾. 이러한 변화는 음악, 무용, 패션, 메이크업 등의 장르에도 영향을 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1960년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모든 영역과 관련을 맺는 한 시대의 이념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다³⁾. 라틴어 접두사 '포스트(post)'와 근대를 의미하는 'modern'의 결합어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접두사 '포스트'와의 관계와 같이, 근대성에 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재현을 거부하기 위해 전통, 혹은 과거의 형식을 빌려 현재 상황으로 변형시킨 다음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거의 현존이

1) 박선신(2005),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를 응용한 작품제작연구-해체주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2) 이관이(2000),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 박연선(2007), 「색채용어사전」, 서울:예림, p.197

4) 신승환(2004),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살림출판사, p.10

있고,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반(反)모더니즘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예술과 일상생활의 경계를 없애거나 고급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차이를 줄여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위계적 관련이 없음을 환기 시켰다⁵⁾.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은정(2010)⁶⁾은 현대 패션과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디자인 영역을 넓혀주었고, 최예진(2010)⁷⁾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반영한 대중문화가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분석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주선화(2012)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형태를 이용한 커트의 응용기법과 구조적인 형태선과 앵글(angle)의 요인을 재현하여 디자인의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커트 이론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문신하(2005)⁹⁾는 현대발레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대발레 작품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와 영향을 분석하여 현대발레의 발전적인 시각을 제공하였고, 이수인(2005)¹⁰⁾은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양상을 디자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구는 다양한 예술 분야와 어우러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이크업 분야의 연구로는 고찰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5) 삼성디자인넷, "포스트모더니즘의 개관",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5, 4.20,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History/Art/ArtHistory/content.asp?an=30044&conn_seq=001&glChk=&block=&page=&cnt=&keyword=%C6%F7%BD%BA%C6%AE%B8%F0%B4%F5%B4%CF%C1%F2

6) 문은정(2010), 「현대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최예진(2010),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대중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주선화(2012),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형적 형태를 이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문신하(2005), 「현대발레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재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재 메이크업 디자인분야는 뷰티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환타지메이크업, 바디아트, 아트마스크 등으로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면서 작품성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는 가면 혹은 면(面). 안면 또는 머리의 전반(前半)을 나타내는 조각¹¹⁾이라고 정의되며 아트메이크업의 발달로 인간의 얼굴에 국한되지 않고 마스크에 디자인이 옮겨지게 되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고 있다.

최근 뷰티분야의 발전으로 미용학원이나 미용대학에서 아트마스크 작품 제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모전, 대회, 전시회 등에서 아트마스크가 등장하고 있지만 예술사조의 특성과 작가의 작품세계에서 나타나는 조형성을 응용하여 아트마스크를 제작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드러나는 패션 디자이너인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활용하여 아트마스크를 제작함으로써 기존 메이크업의 일회적이고 소재사용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예술성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후 아트마스크 디자인 연구에 새로운 사고의 전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있으며, 메이크업 이외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장르간의 융합을 통하여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어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논문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관련 서적, 인터넷 검색, 작품집, 정기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8개를 제작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한국사전연구소(1998), 「미술대사전 v.1 용어편」, 서울:사전연구소, p.223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둘째,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을 연구한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응용된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용어는 포스트(post)와 모더니즘(modernism)의 합성어로, 창조성을 지향하며 1960년경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문화 현상으로¹²⁾, 문학, 건축, 음악, 무용, 패션, 영화, 방송 등 넓고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예술 및 사회 전반의 폭 넓은 세기적 문화 코드로서 자리 잡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문화의 하부구조로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된다. 하나는 탈근대의 의미로서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가치의 붕괴와 권위주의 체계의 해체와 종말을¹³⁾ 의미하며, 또 하나는 모더니즘 이후의 문화현상을 일컫는 말이며 모더니즘과 분리가 아니라 모더니즘의 연속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⁴⁾.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더니즘(Modernism)은 현대적인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근대성(modernity)과 관련된 미술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라틴어 modernus에서 유래하였다¹⁵⁾. 19세기 예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주의에 대한 반항운동

12) 헤럴드오즈본(2001), 「옥스퍼드 20세기 미술 사전」, 서울;시공사, pp.572-573

13) 이광래 외(2009), 「미술의 종말과 엔드게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해체주의까지」, 서울;미술문화, pp.12-13

14) 신지선(2005), 「포스트모더니즘 회화 연구: 미국의 뉴 페인팅 작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5) 월간미술(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월간미술, p.140

인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표현을 지향하며¹⁶⁾ 무장식, 대중성, 기능성, 단순성, 합리성을 추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 새롭고 혁신적인 예술로 부각되었으며 1820년에 처음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이상을 관통하여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⁷⁾. 이러한 모더니즘은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동시대적인 인간의 가치와 사고를 반영하고 현대성의 경향을 가지며 혁명적, 급진적, 개인주의에 거부하며 무차별주의를 추구한다¹⁸⁾.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단일체계를 전제로 하는 모더니즘은 그동안 추구해왔던 새로운 것을 위한 시도가 한계에 다다르자, 1950년대부터 단일체계를 대신하여 다양한 가치 체계를 추구하는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양식, 주제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져 왔으며¹⁹⁾,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논의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다니엘 벨(Daniel Bell)의 저서 「이념의 종말」에서 최초로 활자화 되었고,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가 건축에 적용시키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으며²⁰⁾, 1960년대까지 유행하던 엄격한 사각형 형태의 국제적 양식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건축물을 일컫는 데 사용하였다²¹⁾.

포스트모더니즘은 권위와 중심에 대한 도전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말하는 모든

16) 이지연(2011), 「한국화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198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7) 설미화(2013), 「모더니즘의 조형성을 활용한 퓨전한복의 디자인연구: 한지사 직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8) 이슬(2009), 「매니쉬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디자인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 & IT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9) 문은정(2010), 전게서, p.20

20) 로버트 옛킨스(2003),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서울:시공사, pp.123-124

21) 월간미술(1999), 전게서, pp.496-498

계급의 조직적 질서와 체계, 이른바 거대담론을 뜻하는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에 대한 깊은 회의를 보인다. 그는 현대사회를 탈권위와 붕괴의 시대라고 지적하며 본질적 형식에 대한 파괴, 동일성과 일원성의 해체를 강조하였다. 이런 점을 미루어보아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구조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²²⁾.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더니즘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참다운 의미는 모든 문화적 형식의 차이성을 증진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모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보편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포용하고 발전시켜²³⁾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열린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22) 김옥동(1990),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호 텍스트성」, 서강영문학, 2(0), pp.9-10

23) 최정은(2000), 「데 스틸의 조형원리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 작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예술분야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예술계에서 영향력이 큰 미술과 패션분야의 작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미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모더니즘이 부정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미술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존하며 수용되었다²⁴⁾. 이는 미술의 순수성, 단일성에 반대하여 엄격했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여러 장르들이 서로 혼합되거나 결합되도록 하였다. 대중문화의 패턴과 어법을 차용하거나 활용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 했으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시대의 밀착된 현실 지향적 자세를 보여주었다²⁵⁾. 미술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각 지역에서 각각 다른 명칭을 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등장하였으며 팝아트, 뉴페인팅, 신표현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분야의 작가는 기존의 예술을 비판하고 동시에 비급 대중문화를 순수예술의 종속관계가 아닌 분리된 것으로 만들면서 작품의 소재나 주제를 평범하거나 저급이라 여겼던 것을 선택한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과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 있다.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선구자로 자신을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예술가의 개념을 성공한 유명인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닌 비개성적이고 무의미한 존재로 제시했고, 자신의 아틀리에를 ‘공장’이라고 부름으로

24) 존 위커, 장선영 역(1998), 「매스미디어와 미술」, 서울;시각과 언어, pp.137-138

25) 이훈희(2002), 「미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8

써 예술 고유의 창조성을 부정했다²⁶⁾.

그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시시각각 접하게 되는 대량 생산품과 대중 매체의 산물들을 제 2의 자연으로 보고 작품의 소재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것들을 택했으며²⁷⁾, 슈퍼맨, 배트맨과 같은 연재만화의 인물, 콜라 병, 수프 깡통, 브릴로 상자, 달러지폐, 유명인, 대중스타, 대중매체에 오르내리는 사건, 사고, 모나리자와 같은 걸작 등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림 1>의 「200개의 수프 깡통(200 Soup Cans)」은 앤디 워홀의 1962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으며 일상적인 것들이 작품화 되어 전시장에 전시되어 신선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느껴지고 무수히 많은 이미지와 강압적인 반복에 의해 충격을 주기도²⁸⁾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진 벽지에 무더지듯이 반복성과 대중성을 통해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무감각해진 현대인들의 감성을 나타내었다.

앤디 워홀은 사진의 이미지와 예술적인 기법과는 거리가 먼 실크스크린의 효과를 적극 활용 하였다. 이를 나타낸 작품으로 <사진 2>의 「마릴린 먼로 2면화(Marilyn Monroe diptych)」는 두 개의 캔버스에 실크스크린으로 복제된 동일한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로 반복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 면은 과도한 감광으로 채색된 반면 오른쪽 면은 흑백으로 된 화면을 제시함으로써 극적인 대비효과를 보여 준다²⁹⁾. 앤디 워홀에 의해 복제된 마릴린 먼로는 팝아트의 아이콘을 넘어서 현대 미술의 아이콘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26) 최영주(2006),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2:인문학편」, 서울;휴머니스트, p.20

27) 경지현(2002),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세계 연구」, 경희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41

28) 김보연(2008),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차용과 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3

29) 정영환(2013), 「20세기 팝 아이콘 마릴린 먼로-앤디 워홀의 영향과 동시대 한국미술에서의 재해석」, 기초조형학연구, 14(6), p.337

앤디 워홀의 작품 제작 방식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며 비개성적 이미지를 위해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관에 박힌 똑같은 이미지를 찍어 내었고³⁰⁾, 예술작품의 유일성과 전통적인 예술가의 권위에 도전하여 예술과 예술가의 한계를 넓혀 놓았으며, 예술의 상업적 성격을 직시 하였다³¹⁾. 이런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해 작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작품의 일반화는 권위적인 예술가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마르셀 뒤샹은 사물의 재현이라는 전통적인 회화를 부정하였고, 미술품은 작가의 창작 행위 없이 선택만으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음을³²⁾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일상용품을 본래 환경에서 분리하여 전시관이라는 낯선 장소에 배치하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미술품이 된 기성품³³⁾을 의미하는 레디메이드(Ready-made)를 창안하였다.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서 일상적인 대상은 본래 용도와 관계없는 새로운 제목이 붙여지게 되어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³⁴⁾ 나타났다. 대표적인 레디메이드 작품으로 <그림 3>의 「샘(Fountain)」은 평범한 남성 소변기의 방향을 뒤집어 벽에 고정될 편편한 부분을 바닥에 눕혀놓았고 작가의 개입은 배수관 바로 옆 부분에 'R. Mutt 1917'라고 서명한 것³⁵⁾ 뿐이다.

그는 「샘」의 선택으로 소변기의 가치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과 관념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고와³⁶⁾ 개념을 창출하였고, 존재하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객이 재해석 하고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³⁷⁾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

30) 서지윤(2015), 「앤디워홀 작품의 대중성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31) 김보연(2008), 전개서, p.24

32) 현수정(2010), 「마르셀 뒤샹 작품에 나타난 앤드로지니의 차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33) 정효미(2012), 「마르셀 뒤샹의 예술세계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0

34) 상계서

35) 신나리(2015),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36) 류태임(2005), 「마르셀 뒤샹의 반예술정신 및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다. 「샴」은 소변기라는 소재의 차용을 통해 미적 가치관을 폭넓게 만들어 주었으며 관습화된 예술계에 충격을 주어 예술분야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의 「자전거 바퀴(Roue de bicyclette)」는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움직임의 조각품이다. 이 작품은 나무로 된 원형 의자에 금속의 자전거 바퀴를 거꾸로 세워 조립한 것으로 자전거 바퀴라는 물체는 운동을 상징하며 바퀴가 돌아갈 때 시간성도 가지고,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이므로 공간성³⁸⁾도 나타나게 된다. 또 자전거 바퀴를 빠르게 돌리면 가운데 바퀴살 모양이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멈추면 다시 제대로 보이게 되며 움직임이 개입되는 미술인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마르셀 뒤샹은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수공적 노력이 가해졌던 전통적인 작업과는 다르게 대량 제작된 기성의 물품들을 소재로 사용하여 미술작품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그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은 관습화된 미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 하였으며 미술작품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에 반대하고 미술 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

37) 한영이(201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상과 패러디를 통해 본 미의식의 변화연구:본인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38) 홍성아(2007), 「레디메이드 오브제와 생애를 통해 본 마르셀 뒤샹(M. Duchamp)의 예술세계」,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그림 1> 앤디 워홀, 「200개의 수프
강통」 1962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스티븐 파딩 저(2007), p.796)



<그림 2> 앤디 워홀, 「마릴린 먼로
2면화」 1952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후기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편, 진중권(2013). p.187)



<그림 3> 마르셀 뒤샹, 「샘」 1917
([http://www.vival100.com/main/view.php?k
ey=20150308010001191](http://www.vival100.com/main/view.php?key=20150308010001191), 2015.4.17)



<그림 4>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951
(<http://www.artmk.kr/artmk/archives/4875>,
2015.5.31)

(2) 패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혼합되어³⁹⁾ 남녀 성 혼합, 토속성, 민속성, 역사성, 복고성 등이 무질서하게 나타난다. 또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것들의 나열을 통해 기존의 관념을 재음미하고 절충하는 방법을 취하며⁴⁰⁾ ‘열린 패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패션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 절충, 생략, 과장, 중첩, 도치, 차용⁴¹⁾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레트로 룩, 앤드로지너스 룩, 민속풍, 거리패션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선구자로는 여성을 아름답게 꾸미는 모더니즘적인 미에 반대하여, 추(醜)하고 속되며 관습에 거스른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창조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1952~)와 실험적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과 맥락을 함께하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969~2010)이 있다.

장 폴 고티에는 기존의 의상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구성하는 선두적인 디자이너로 젊고 섹시한 멋이 주를 이루며⁴²⁾ 전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 누구에게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의상을 만들기 위해 음악, 예술, 문화 등 시대성을 가미 시켰으며 거침없이 새로운 형태와 질서를 창조해 내었고⁴³⁾ 그의 독창적인 패션 경향은 패션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9) 김소현(2013), 「니트 패셔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201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2), p.45

40) 김지민(2012), 「릭 오웬스(Rick Owens) 패션 작품의 디자인 요소 분석을 통한 스타일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41) 이은경(2002), 「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p.289

42) 김희선(2004),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43) 조민정(2008), 「Jean Paul Gaultier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2), pp.123-124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 상호텍스트성을 복식에 표현함에 있어 장 폴 고티에는 성의 병행인용과 더불어 성의 혼합 기법을⁴⁴⁾ 사용하였으며, 브래지어, 코르셋, 가터 등의 속옷을 겉옷으로 변형시킨 란제리 룩⁴⁵⁾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수 마돈나의 의상에 금속성 코르셋, 익살스런 모양의 원추형 브라, 역사성을 지니는 코르셋 슈트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특이한 속옷의 겉옷화를⁴⁶⁾ 표현하였다.(그림 5)

장 폴 고티에는 의복이 성을 구별해주는 도구로 이용됨을 거부하고 남성 의복과 여성 의복이 가지는 이미지, 소재, 형태, 디테일 등을 서로 교차하거나 통합시켜 새로운 감각으로⁴⁷⁾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을 위해 장 폴 고티에는 남성복에 스커트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스타일과 소재의 왜곡된 혼합과 의도된 부조화의 배치도 나타내었고⁴⁸⁾,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는 그의 패션 경향은 패션계에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심어주었다.(그림 6)

패션계의 반항아로 불리는 알렉산더 맥퀸은 패션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연출과 함께 파격하고 도발적인 메이크업과 헤어, 일반적인 소재의 개념을 뛰어넘은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등으로 강한 충격을 전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내리는 적극성과 도전정신으로 현대 패션계의 가장 주목 받는 디자이너로⁴⁹⁾ 호평을 받고 있다.

44) 김아진(1998),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복식디자인 연구: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 레아 가와쿠보(Rei Kawakub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5

45) 최영욱(2002), 「Jean Paul Gaultier 작품에 나타난 외적 해체경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 p.333

46) 김아진(1998), 전계서

47) 노미정(2005), 「해체주의적 의상이 영화 속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효과:장 폴 고티에의 영화 의상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2

48) 임소영(2003), 「장 폴 고티에 패션디자인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4-77

49) 김보미(2012),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에 표현된 건축적 탈정형 공간」,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72

알렉산더 맥퀸은 의복을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해석함으로써 디자인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 비례, 강조 리듬의 조화를 파괴하여⁵⁰⁾ 과도한 비대칭적 사선의 앞서짐 또는 부분적인 확대나 과장, 지나친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강조, 특이한 구조의 착용 모습, 소매나 칼라 등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형태 등으로⁵¹⁾ 전체적인 의복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여 나타난다. (그림 7)

알렉산더 맥퀸은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으로 서구 중심의 절대적 이상미에 도전하기 위해⁵²⁾, 민속적인 요소간의 퓨전 에스닉 경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유럽 고전 복식과 소수 민족 문화에 집중함으로써 인디언,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의 복식과 문화를 차용하여⁵³⁾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을 창조하였다.(그림 8)

50) 김윤진(2005),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성향에 관한 연구: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9

51) 박은경(2006),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52) 김영란(2010),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p.78

53) 김주연 외(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p.305



<그림 5> 장 폴 고티에,
「마돈나 의상」

(<http://cultmagazine.com.au/2014/10/jean-paul-gaultier-celebrated-national-gallery-victoria/>, 2015.4.29)



<그림 6> 장 폴 고티에,
「2010 S/S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0-menswear/jean-paul-gaultier/collection/36>, 2015.4.29)



<그림 7> 알렉산더 맥퀸,
「2001 F/W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1-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59>, 2015.4.29)



<그림 8> 알렉산더 맥퀸,
「2005 S/S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5-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33>, 2015.4.29)

3)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시대에 오직 한가지의 스타일만을 갖는다는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 다양성과 복합성이 공존하는 스타일로 바뀌어⁵⁴⁾ 나타났다. 이는 동질성, 획일성, 통일성 등과 같은 합리주의적 전통을 무시하고, 다양하면서 대중적이고 개성적인 것을 존중하며, 보편적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거부하고⁵⁵⁾ 오늘날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또 장식과 의장을 수용하고 고급예술과 저속예술,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뒤섞어 혼용함으로써 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중시하고 문화의 다원주의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한 이론가들은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 수전 손택(Susan Sontag) 등이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지주로 알려지고 있는 이합 핫산(Ihab 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문화의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련의 포스트모던한 특질을 병렬적인 목록식으로 제시하여 ‘불확실성’, ‘단편화’, ‘탈 경전화’, ‘재현불가능성’, ‘혼성모방’, ‘대중주의’,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으로⁵⁶⁾ 정리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다정(2002)⁵⁷⁾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일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불확실성’, ‘단편화’, ‘탈 경전화’, ‘재현불가능성’, ‘혼성모방’, ‘대중주의’,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으로, 문신하(2005)⁵⁸⁾는 현대발레 작

54) 존 A. 위커, 정진국 역(1988),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서울:열화당, p.96

55)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2

56) 이합 핫산, 정정호 역(2007), 「포스트모던 문화와 문학」 서울:신아사, pp.183-193

57) 김다정(2002),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품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과 그러한 특성이 현대발레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도출하기 위해 '다원주의', '절충성', '상호텍스트성', '탈 장르성', '대중성'으로 분류하였다.

우보경(2009)⁵⁹)은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의 공연에서, 작품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무대의상의 조형적 조건 및 창작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패스티쉬', '패러디', '콜라주', '아이러니', '탈 신체화 및 탈 구성화'로, 문신애(2003)⁶⁰)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의복에 적용된 패치워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원성', '절충성', '역사성', '전환성'으로 분류하였다.

김예성(2002)⁶¹)은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러디', '그로테스크', '유희성', '탈 장르화', 로, 박동은 외⁶²) (2012)는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이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독창성', '몰형식성', '탈 중심성', '대중주의', '혼성모방'으로 분류하였다.

이윤령(2014)⁶³)은 20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예술 장신구의 경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영역의 확산', '이중성', '은유성', '유희성', '대중성', '다양한 재료의 사용', '역사의 재해석'으로 분류하였고, 선행연구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표 1>로 정리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는 패션과 디자인에 적용 가능하며 패션 작품을 아트마스크로 표현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다원주의', '상호텍스트성', '몰형식성', '혼성모방'으로 분류하였고, 작품 제작의 주제 또한 이러한 특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58) 문신하(2005), 전개서

59) 우보경(2009), 「1990년대 이후 한국연극의 무대의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0) 문신애(200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1) 김예성(2002),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8(2)

62) 박동은 외(2012),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및 표현방법: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미용예술학회지, 6(4)

63) 이윤령(2014),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예술 장신구의 경향」, 한국공예논총, 17(3)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연구자	특성
이합 핫산	불확실성, 단편화, 탈 경전화, 재현불가능성, 혼성모방, 대중주의,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
김다정(2002)	불확실성, 단편화, 탈 경전화, 재현불가능성, 혼성모방, 대중주의, 행위와 참여, 보편내재성
문신하(2005)	다원주의, 절충성, 상호텍스트성, 탈 장르성, 대중성
우보경(2009)	페스티쉬, 패러디, 콜라주, 아이러니, 탈 신체화 및 탈 구성화
문신애(2003)	다원성, 절충성, 역사성, 전환성
김예성(2002)	패러디, 그로테스크, 유희성, 탈 장르화
박동은, 양은진, 김설옥, 윤상미, 민정숙, 박은준(2012)	비독창성, 몰형식성, 탈 중심성, 대중주의, 혼성모방
이윤령(2014)	영역의 확산, 이중성, 은유성, 유희성, 대중성, 다양한 재료의 사용, 역사의 재해석

(1) 다원주의(다원성)

다원주의는 7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혼란의 양상이며 모더니즘의 마지막 보루였던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이 쇠락해 가면서 그 징후로써 나타난 일련의 다양한 경향을⁶⁴⁾ 뜻하고, 특정한 것만을 주류로 간주하려는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관점으로서, 어떤 단일한 접근방식이 대폭적인 지지를 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수의 양식이 서로 공존하는 문화적 접근방식으로⁶⁵⁾ 사회문화 전반에서 목격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의 보편적인 이성과 이성 중심적 형이상학의 진리관을 해체시키고 거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절대적 진리관을 사유주체의 상대성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진리와 주체의 탈중심화를 도출하였고 그 대안적 차원으로 다원주의를 제기하였다⁶⁶⁾. 다시 말해 서양의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을 절대적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층 간의 위계질서, 경계의 해체 등을 수반하는 다원주의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의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고급과 저급의 경계가 허물어져 일반 대중을 지향하는⁶⁷⁾ 현상이 나타났다, 또 문화영역에서는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가치체계에서 탈피하여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용하거나 영역간의 상호침투 현상이 목격되고, 미술에서는 궁극적인 미의 개념이나 고전적 가치체계가 붕괴되어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지방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고⁶⁸⁾ 다양한 장르와 통합하고 혼합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64) 김옥동(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문학과 지성사, p.450

65) 남미경(2012), 「포스트모더니즘디자인에 미친 문화다원주의(Pluralism) 영향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p.147

66) 김옥동(1990), 전개서, p.14

67) 김주용(2012), 「Pina Bausch 작품의 다원주의적 특성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6

68) 이계영(1997), 「현대미술의 다원주의적 경향과 통합예술적 관점에 의한 환경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2)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은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의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텍스트로 간주하였고⁶⁹⁾ 이 텍스트들은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데리다에 의한 텍스트란 서로 교차하며 무한히 확장하는 조직적인 특징을 지니며⁷⁰⁾ 모든 텍스트는 기호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⁷¹⁾ 끊임없이 병행, 인용하여 영역을 넓힌다.

상호텍스트성으로서의 텍스트의 조건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문학, 철학, 회화, 음악, 영화 등 타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중첩하여 일관된 통합을 피하고 다른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끌어내며⁷²⁾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목적, 장소, 용도 등 모든 것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으로⁷³⁾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남녀 성 역할이 붕괴되었고 이는 상호텍스트성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남성스러운’, ‘여성스러운’과 같은 성의 요소를 해체하여 성 역할에 따른 차이를 무효화 시키고⁷⁴⁾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이 중성이나 적극적인 성, 동등한 성, 개방된 성, 공유하는 성⁷⁵⁾ 등의 제 3의 성 그리고 양성교차로 나타나⁷⁶⁾ 양성을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

69) 김형호(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민음사, p.20

70) 김서희(2015), 「헤어디자인에 표현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71) 존 레웰린. 서우석 역(1988), 「데리다의 해체주의」, 서울:문학과 지성사, p.102

72) 김혜정(2004).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애니메이션, 음악, 무대예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4(2), p.107

73) 최민령 외(2009).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표현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3(4), p.119

74) 김주현(1990),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75) 신나리(2015), 전개서, p.8

us)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상호텍스트성은 상호작용하는 양쪽 모두를 참조함으로써 중간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미 유보를 유도하여 단일화, 획일화로 부터 탈피하는⁷⁷⁾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3) 몰형식성

몰형식은 형식성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미적 판단을 위해 성립되어 있는 기존의 모든 정의, 위계, 규칙들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미학학적 개념을 가리키며⁷⁸⁾ 파괴, 분해, 왜곡, 과장, 삭제,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 미완성, 변형 등이 표현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고, 모더니즘의 일관된 장르의 형식을 부정하여 일정한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⁷⁹⁾ 기본적인 디자인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추(醜), 왜곡 등의 비정상성을 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미숙하고 조화롭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하여 파괴되고 허물어진 형식을⁸⁰⁾ 만들어 낸다.

부조화로 조화를 형성하는 몰형식성은 모든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벗어나 반대 개념을 포함하는 다양함을 인정하고,⁸¹⁾ 고정된 형식의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아름다움과 충격적인 새로움까지도 미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대두되어 미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76)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5

77) 김지연 외(2008),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1, p.45

78) 김동빈(2009),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몰형식성에 대한 리오타르의 숭고미학적 해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5

79) 박동은 외(2012), 전개서, p.235

80)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脫)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81) 선혜미(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醜)의 미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4) 혼성모방

혼성모방은 모방을 전제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이탈리아어 ‘패스티치오(pasticcio)’에서 유래한 패스티쉬(pastiche)⁸²⁾이며 번역하면 혼성모방(混成模倣)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혼성은 서로 혼합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하고⁸³⁾, 모방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거나 흉내 내는 것으로 정의⁸⁴⁾되고 있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다른 어떤 작품과도 혼동되거나 유사하지 않는 독창적이고 명백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는데⁸⁵⁾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모더니즘적 특성이 혼성모방을 발생하게 된 근거가 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새로움은 복고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며 소재의 고갈이나 소진을 깨닫고 과거의 소재를 재생하여 활용하고⁸⁶⁾, 특정한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의미 없는 표면적인 스타일상의 조합일 뿐⁸⁷⁾, 원작을 풍자하기 위해 일부를 변형하는 패러디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혼성모방은 원본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공허한 이미지들의 혼합이며 예술 작품 또는 문화 현상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생산물로 재창조하는 현상이다.

82) 양학미(1998),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83) 신기철(1991), 「새우리말 큰사전 하」, 서울:삼성출판사, p.3744

84) 신기철(1991), 「새우리말 큰사전 상」, 서울:삼성출판사, p.1174

85) 최지환(2010), 「현대 미술의 형식 차용 연구:본인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와 패스티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86) 홍원(1998), 「패러디 표현방법을 통한 광고에 있어서 창조와 모방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87) 박길순 외(2009), 「현대 패션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혼성모방 표현양상 분석」,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4), p.355

2. 마틴 마르지엘라

1) 마틴 마르지엘라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고 있는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1957년 벨기에에서 가발과 향수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후 앤트워프의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했으며⁸⁸⁾ 월터 반 베이렌도르크(Walter Van Beirendonck), 드리스 반 노트(Dries Van Noten), 디크 반 세인(Dirk Van Saene),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 디크 비켄버그(Dirk Bikkembergs)로 구성된 앤트워프 6인(The Antwerp Six)으로 알려진 그룹의 일원이지만, 실제로 그들보다 1년 일찍 왕립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뛰어났다. 1982년에는 패션의 고장인 파리로 이사 했으며,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전위적인 패션 철학을 가진 마틴 마르지엘라는 1983년에 황금 물레상을 수상하면서⁸⁹⁾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1984년에는 장 폴 고티에의 디자인 팀에 어시스턴트로 합류하여 3년간 일을 하였고 1988년에 파리에서 자신의 첫 번째 쇼인 여성 기성복 S/S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제니 메이렌스(Jenny Meirens)과 함께 브랜드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를 설립하여⁹⁰⁾ 세계적인 집중을 받게 되었다.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우려와 걱정 속에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보급판인 MM6는 여성적인 요소를 대중적으로 재해

88) 이재정 외(2011), 「패션, 문화를 말한다:패션으로 20세기 문화 읽기」 서울:예경, pp.310-311

89) Ian Luna(2009), 「Masion Martin Margiela」, Newyork:Rizzoli, pp.360-361

90) 히웰 데이비스, 박지호 역(2012), 「디자이너의 패션북」, 서울:1984, p.102

석한 브랜드로 2004년에 론칭됐으며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독특한 감각을 계승하면서도 가격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론칭과 동시에 젊은 층을 기반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⁹¹⁾. 이렇게 마틴 마르지엘라는 자신의 의복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만으로 대중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 때문에 대중 앞에 나타나는 홍보를 극도로 회피하였고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 인터뷰를 하더라도 마틴 마르지엘라가 아닌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하우스 팀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해 답변하여 노출을 꺼렸다. 이런 그의 방식은 마케팅 전략으로 오인 받았지만 소수의 특권층을 사로잡는 디자이너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들이 유명인처럼 상업화 되어가던 패션업계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을 뜻하기도 하였다⁹²⁾. 패션계의 상업화 보다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의 철학은 패션계는 물론이고 신생 디자이너들에게도 활력과 신선함을 주고 있다.

2009년에 마르지엘라는 돌연 은퇴했고, 그가 없는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는 마틴을 뺀 메종 마르지엘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메종 마르지엘라 크리에이티브 디자인팀(Maison Margiela Creative Design Team)이 운영하였고 현재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를 이끌고 있다.

91) 김선주(2015, 1.11), “해체주의로 관습에 도전한 이단 ‘마틴 마르지엘라’, 패션 역사의 한 장을 쓰다”,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15, 3.23,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322471>

92) 최지영(2014, 9.24), “얼굴 없는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 스포츠투데이, 자료검색일: 2015, 3.23, 출처: <http://bit.ly/1yq4bsy>

2)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특징

포스트모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는 풍부한 창의력과 독창적인 조형 감각이 실루엣에 나타나며 일상적인 착장법을 무시하였고⁹³⁾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일반적인 패션의 관습을 파괴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던 시절에 마틴 마르지엘라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맞출 돈이 없어서 약사가운을 입기 시작하였고 벼룩시장에서 주운 고물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였으며⁹⁴⁾ 약사가운과 흰색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에서 보여 지듯이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 철학은 수명을 다한 것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재활용을 이용해 파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그의 패션을 ‘리사이클링 패션(recycling fashion)’이라고 불렀다.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준 <그림 9>의 8개의 양말로 만든 블라우스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그림 10>은 버려진 여행용 가방을 활용한 작품으로 여행용 가방의 특성을 살려내기 위해 화물 인증 표시를 제거하지 않았고 수납을 위한 주머니가 많이 있는 것⁹⁵⁾을 볼 수 있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그림 11>에서 보이듯이 테일러드 재킷을 상의가 아닌 스커트로 변형시켜 착장의 고정관념이 극도로 파괴⁹⁶⁾되는 특징이 드러났다. 또한 <그림 12>은 이불을 변형시켜 만든 오버사이즈의 듀벳 코트(Duvet Coat)를 선보이기도 하였고, <그림 13>는 살색 바디슈트에 검

93) 박수진(2006), 「포스트모던 알레고리 이미지 패션의 다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마틴 마르지엘라 패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94) 조은주(2011), 「벨기에 패션의 네오아방가르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1

95) 정수영(2011),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2

96) 박수진(2006), 전개서, p.34

정색 브래지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마치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켰다⁹⁷⁾. 이는 정형화된 패션의 틀과 구조를 벗어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위적인 패션과 더불어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모델의 눈과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노출을 꺼리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신념과 같이 오로지 옷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델의 얼굴에 베일을 씌웠다. 이러한 특징은 익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패션계의 현실에 대한 저항임을 알 수 있다.

97) 이나래 외(2011), 「해체주의 디자이너 작품을 통한 의상 디자인 창작」, 생활과학연구논총, 15(1), p.104

One to make at Home..



<그림 9> 마틴 마르지엘라,

「8개의 양말로 만든 블라우스」

(<http://20x20.tistory.com/164>, 2015.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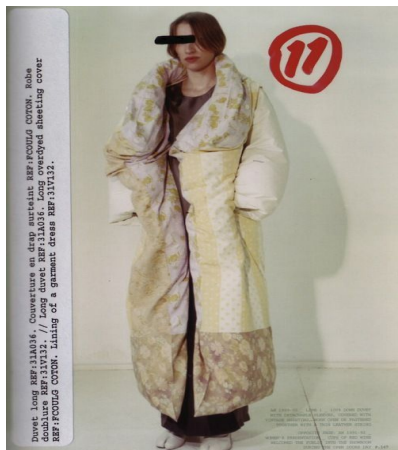
<그림 10> 마틴 마르지엘라,
「여행용가방으로 만든 재킷」

(<http://www.elle.com/runway/spring-2007-couture/g5358/maison-martin-margiela-160096/>, 2015.5.22)



<그림 11> 마틴 마르지엘라,
「2003 S/S Paris」

(<http://www.stylebistro.com/runway/Maison+Martin+Margiela/Paris+Fashion+Week+Spring+2003/rL4Q8neS41j>, 2015.5.22)



<그림 12> 마틴 마르지엘라,
「1999-2000 A/W」

(Masion Martin Margiela, Ian Luna(2009), p.167)



<그림 13> 마틴 마르지엘라,
「2007 S/S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7-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16>, 2015.5.22)

3) 마틴 마르지엘라의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작품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과거와 현대의 양식을 자유롭게 혼합시키며, 기존의 형식을 해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⁹⁸⁾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성은 앞서 연구한 바와 같이 다원주의, 상호텍스트성, 몰형식성, 혼성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또한 앞서 제시한 4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다원주의

다원주의 패션은 모든 주체와 양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왜곡, 첨가, 중복, 해체, 생략⁹⁹⁾ 등 고정되고 폐쇄적이 아닌 새롭고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사고를 제시하고, 하이패션과 펑크, 히피의 접목으로 즐거움과 유희성을 제공한다. 또 금속성의 광택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High-Tech) 감각 소재를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우나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지구오염과 환경파괴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콜로지(ecology) 경향이 나타나¹⁰⁰⁾ 천연소재와 재활용품 소재 사용이 늘어났다.

<그림 14>와 <그림 15>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재활용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기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깨진 접시와 철사를 이용해 조끼를 만들었고, 밋밋한 가죽 재킷에 잘게 찢은 종이를 붙여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다. 재활용된 재료들은 재사용의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본래의 형태를 크게 변형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재구성하여 기존의 특징

98) 이지현 외(2011), 「매니쉬(mannish)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51

99) 배정민(2005),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100) 최영옥(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p.463

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구성하였다¹⁰¹⁾. 쉽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림 16>은 기존의 의상 재료의 제한을 탈피한 작품으로 원단이 아닌 수 백개의 알록달록한 속눈썹을 이용하여 조끼를 만들었으며 소재의 다양성과 속눈썹이라는 소재에 대한 유희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7>는 거울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비치는 빛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¹⁰²⁾ 하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갑옷을 연상시키고 있다. 각 각의 다른 이미지를 반사하는 금속은 관찰자들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미래와 과거의 혼합으로 시공간의 초월을 보여주고 있다.

101) 박지연(2014), 「업사이클링 리디자인 의상 개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102) 고희진(2011), 「21세기 패션에 표현된 미래주의」,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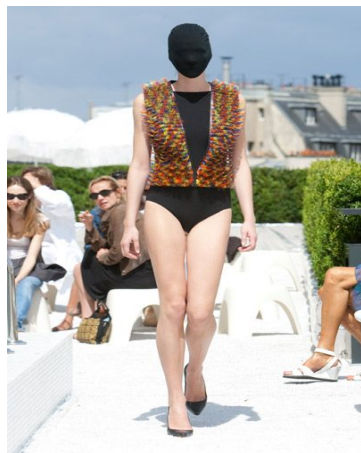
<그림 14> 마틴 마르지엘라,
「1989-1990 A/W」

(<https://www.pinterest.com/pin/70016969178097244/>, 2015.5.12)



<그림 15> 마틴 마르지엘라,
「2008-2009 A/W」

(Masion Martin Margiela, Ian Luna(2009),
p.43,
2015.5.12)



<그림 16> 마틴 마르지엘라,
「2009 Fall」

(<http://www.popsugar.com/fashion/Martin-Margiela-Goes-Artisanal-Pen-Caps-False-Eyelashes-Fall-2009-Couture-3450878#photo-3450928>, 2015.5.18)



<그림 17>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http://www.inspirationgreen.com/oneofakindclothes.html>, 2015.5.18)

(2) 상호텍스트성

패션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패션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해체된 것을 뜻하기도 하는 성의 혼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속옷의 겉옷화,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착용하거나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의 결합,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값비싼 소재와 값싼 소재와의 결합 등 극단적인 대비와 표현을 통해서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던 기능성은 무시되고 다양성이 추구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¹⁰³⁾.

<그림 18>은 비닐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의상을 디자인 한 것으로 소재의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파악해 형태들을 서로 중첩시켜 관찰자들이 모든 형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며 빛의 투과와 반사로 이중적인 느낌을 준다¹⁰⁴⁾.

<그림 19>는 뒷면을 생략한 재킷으로 인체의 성적인 부위를 상징화 하여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노출과 은폐의 반복현상이 나타나며¹⁰⁵⁾ 상호텍스트성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속옷의 겉옷화이다.

<그림 20>는 성의 개념을 초월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녀의 구분이 모호해져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판단하는데 혼동을 주기도 한다.

<그림 21>은 비닐 쇼핑백으로 만든 티셔츠에 평상적인 하의를 매치시켜 상반된 소재를 병행인용 하였고 복식의 양면가치를 통해 복식자체의 경계를 허물게 되어 새로운 미의 개념을 나타내고¹⁰⁶⁾ 있으며 창의적이며 열린 사고를 제시한다.

103) 황인선(2002), 「20세기 이후 실내디자인과 패션에 있어 조형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114

104) 김선영 외(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의류학회지, 32(5), p.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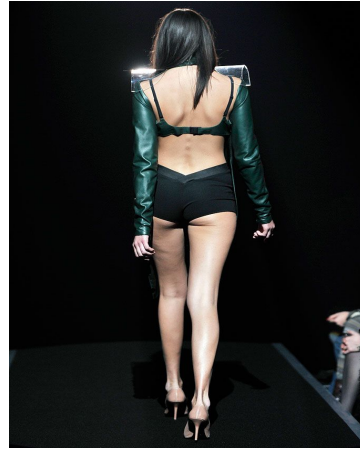
105) 윤진아(2006), 「여자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패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1

106) 장정임 외(2006), 「Martin Margiela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패션과 니트, 4(1),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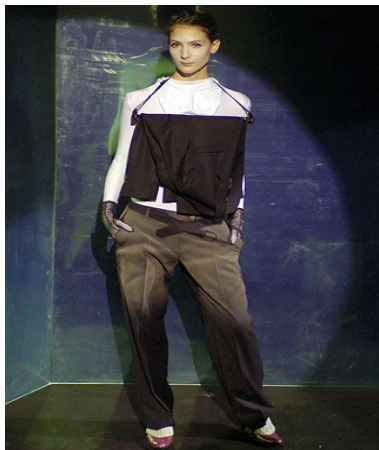
<그림 18> 마틴 마르지엘라,
「A/W 2011-2012 Paris」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couture/maison-martin-margiela/full-length-photos/gallery/640063>, 2015.4.3)



<그림 19> 마틴 마르지엘라,
「2009 Fall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3>, 2015.5.12)



<그림 20> 마틴 마르지엘라,
「2006-2007 A/W Paris」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6/ready-to-wear/martin-margiela/full-length-photos/gallery/170083>, 2015.5.18)



<그림 21> 마틴 마르지엘라,
「1990 S/S Paris」

(Masion Martin Margiela, Ian Luna(2009), p.235, 2015.5.18)

(3) 몰형식성

몰형식성 패션은 인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기존의 재단 및 구성법을 탈피함으로써 불균형의미를 시도하거나 이질적인 소재를 콜라주(collage) 기법을 이용하고 불규칙하게 적용하여 의외적인 기발함을 추구하기도 한다.¹⁰⁷⁾ 이는 전통적인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는 새로운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과 <그림 23>은 끈을 이용하여 인체에 묶거나 흐르게 표현한 작품이며 완전한 형식에 대한 부정으로 기존의 의복 규칙에 지배 받지 않고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는 의복의 형태는 평면적인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손으로 펼쳐 착용하면 입체적으로 표현된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극단적 표현을 위해 새롭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냈으며¹⁰⁸⁾ 이는 의복의 조형개념, 기능성과 목적성 등을 파괴하였다.

<그림 25>은 의상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솔기와 시접, 지퍼를 노출하여 일반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감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오히려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¹⁰⁹⁾ 옷의 제작과정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

107) 변영희 외(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Anti Couture 경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7), p.1106

108) 조쌍미(2003), 「벨기에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현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109) 최지영(2014, 9.23), “[브랜드스토리] 얼굴 없는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 스타일뉴스, 자료검색일 : 2015, 5.19, 출처: <http://www.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



<그림 22>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8>, 2015.5.12)



<그림 23>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http://www.filemotwary.com/motwary/2009/01/maison-martin-margiela-artisanal-s-s09-couture.html>, 2015.5.18)



<그림 24> 마틴 마르지엘라,
「2009 S/S Paris」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full-length-photos/gallery/324794>, 2015.5.18)



<그림 25> 마틴 마르지엘라,
「2005-2006 AW」

(Masion Martin Margiela, Ian Luna(2009), p.75, 2015.5.18)

(4) 혼성모방

패션에서의 혼성모방은 과거의 모방을 통한 복고성, 대중문화의 절충성, 아방가르드한 심미성, 소수민족과 문화의 모방을 통한 민속성¹¹⁰⁾, 오브제의 기용, 소외미의 부상¹¹¹⁾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역사적, 지역적, 성적인 요소 등을 의미의 초월로 필요한 요소만 차용, 변형, 부분 복제하여 해체, 조합, 절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¹²⁾.

<그림 26>은 과거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스타일과 실루엣이 복고(Retro)적 요소로 차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¹³⁾. 이 작품은 1970년대에 유행했던 파워 숄더(Power Shoulder) 스타일로 어깨가 강조된 직선형 패턴으로 나타나며 과장된 크기의 표현을 극대화 하고 있다¹¹⁴⁾.

<그림 27>은 소수 부족의 추장이 쓰는 듯 한 퍼(fur)로 된 헤드피스를 모방했으며, <그림 28>은 동양적인 플라워 패턴을 차용하여 히피(hippie) 스타일로 표현했으며, <그림 29>는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나 개척자들이 착용한 웨스턴 룩(western look)을 모방하였다. 이런 민속적이고 지역적인 혼성모방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독특한 민속적 이미지들과의 접촉으로 패션 공간에서의 장벽이 붕괴되면서 나타났으며¹¹⁵⁾ 각 문화의 특성이 서로 공존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110) 진경옥 외(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5), pp.149-154

111) 손향미(2002), 「현대의 뷰티 및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pastiche) 분석: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복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11

112) 신정임(2008),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혼성모방(混成模倣)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113) 나현신 외(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 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p.466

114) 김영란(2010), 「파워 숄더 룩의 패턴구조 분석」, 디자인학회연구, 23(4), p.271

115) 김하정(2001), 「현대 패션의 창조적 디자인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부터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그림 26> 마틴 마르지엘라,
「2008 Fall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8-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19>, 2015.5.12)



<그림 27> 마틴 마르지엘라,
「2010 Fall Paris」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0-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39>, 2015.5.18)



<그림 28> 마틴 마르지엘라,
「1992 S/S」

(Masion Martin Margiela, Ian Luna(2009), p.77, 2015.5.18)



<그림 29> 마틴 마르지엘라,
「2010 A/W」

(<http://www.vogue.com/870896/vd-couture-2010-martin-margielas-artisanal-line/>, 2015.5.18)

Ⅲ.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오늘날 메이크업은 미적 가치관이 다양화, 개방화 되면서 창의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특성을 가진 작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얼굴이 아닌 아트마스크를 사용하여 방법적인 면에서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아트마스크 디자인의 예술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예술적 혼합을 통한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으로 전통적인 관습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소재와 다양한 기법의 사용으로 전위적인 방식들이 도출되어 창조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문학, 건축, 미술, 음악, 무용, 패션, 영화 등에서도 다양한 양식과 개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활용한 아트마스크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써 예술성 높이고 문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작품에서 전반적인 색감과 재료는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서 착안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했으며 메이크업의 오브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스타킹, 잡지, 에어캡, 인조 수염, 지퍼 등을 활용하였다.

작품은 총 8작품으로 다원주의 특성을 파격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 2점, 상호텍스트성을 소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 2점, 물형식성이라는 특성을 비대칭과 부조화를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 2점, 혼성 모방의 특성을 차용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 2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

른 작품 계획은 <표 2>와 같다.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

작품명	특성	소재	색채	모티브	일러스트
작품 I	다원주의	스타킹 속눈썹	Black Dark Brown		
작품 II		잡지	White Red Yellow Blue		
작품 III	상호텍스트성	아크릴물감 인조 수염 레이스 버클	Black White Yellow Red		
작품 IV		아크릴물감 에어캡	Red Yellow Green Blue		
작품 V	물형식성	아크릴물감 종이 색연필	White Black Pink Gray		
작품 VI		원단 실 지퍼	Beige Ivory Blue		
작품 VII	혼성모방	하드보드지 원단	Olive green Black		
작품 VIII		아크릴물감 큐빅 레이스 깃털	White Blue Red Brown		

2. 작품제작

1) 작품 I



(1) 작품설명

<그림 30>의 작품 I은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소재를 사용하여 다원주의 특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마스크에 스타킹을 씌우고 속눈썹을 부착해 형태를 나타냈다.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다원주의에 영감을 받아 패션에서는 생소했던 속눈썹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메이크업에 접목시켰다. 또 마스크에 스타킹을 씌워 마틴 마르지엘라가 추구하는 익명성을 함께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2009년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인 속눈썹 조끼의 형태를 유지해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패션 재료의 제한을 탈피하고 메이크업에서도 눈에만 한정되는 속눈썹을 얼굴 양쪽에 전체적으로 뒤덮음으로써 소재의 기능의 한계를 극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I의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제작방법

- ① Dark Brown색 스타킹을 마스크에 두 겹 씌워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준다.
- ② 두툼하고 풍성한 Black색 속눈썹을 턱에서부터 이마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접착제로 고정시켜준다.
- ③ 마스크 가장자리에 튀어나온 속눈썹을 재단한다.

<표 3>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다원주의
재료	스타킹, 속눈썹
색채	



<그림 30> 작품 I

2) 작품 II


(1) 작품설명

작품 II <그림 31>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재활용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기법을 이용하여 다원주의를 나타낸 작품으로 잡지를 잘라 마스크에 붙임으로써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중 잘게 찢은 종이를 붙여 만든 제켓을 연상 할 수 있게 하였다. 기간이 지난 잡지인 폐지를 소재로 사용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이콜로지 경향이 나타게 하였고, 자른 잡지의 길이, 크기, 색채를 다양하게 하여 단일한 것이 아닌 다수의 양식이 서로 공존하는 다원주의를 표현하였다. 또 마스크의 눈 과 입, 가장자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기존의 양식에 고정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닌 개방적인 태도와 열린 시각을 나타내었다. 작품 II의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다.

(2) 제작방법

- ① 잡지를 다양한 길이와 크기로 자른다.
- ② 자른 잡지를 하나씩 접착제를 이용해 서로 다른 위치에 붙여준다.
- ③ 왼쪽 눈 부분과 입 부분은 제외하고 잡지를 붙여준다.
- ④ 마스크 가장자리 부분은 경계에 상관없이 일정하지 않게 잡지를 붙여준다.

<표 4> 작품 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다원주의
재료	잡지
색채	



<그림 31> 작품 II

3) 작품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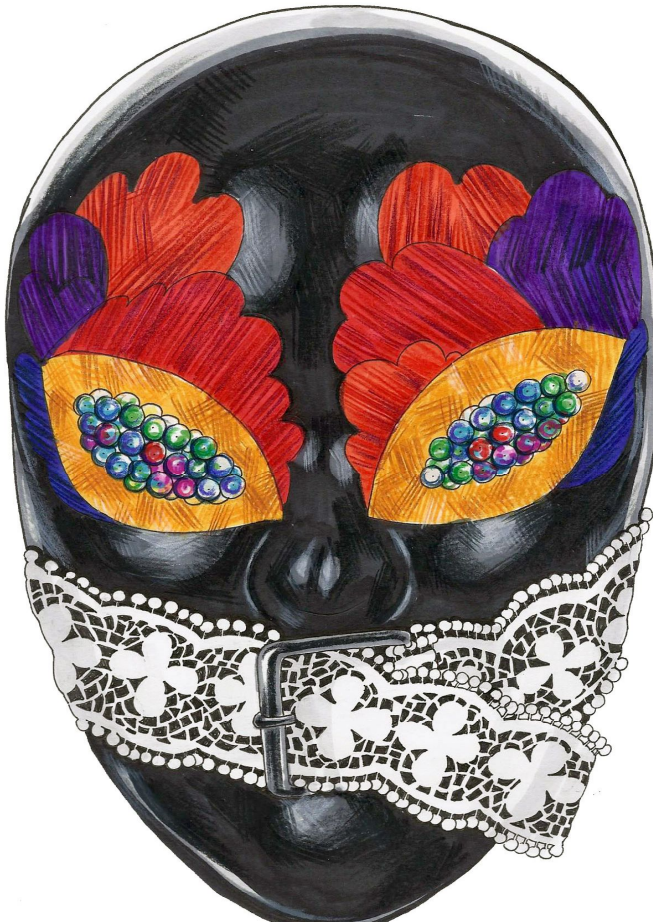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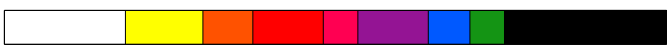
(1) 작품설명

<그림 32>의 작품 III은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여성성이 드러나는 소재인 레이스와 남성성의 상징인 수염을 콜라주로 사용하였다. 성이 정해지지 않은 마스크라는 이미지에 각각의 색상으로 염색시킨 인조 수염을 이용해 여성의 미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여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파괴시켰다. 또 레이스를 이용하여 남성의 패션 아이템인 벨트를 제작하여 성의 혼합을 표현하였고, 전체적인 마스크의 디자인은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서 나타나는 마스크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소재를 혼합시켜 성의 요소와 경계를 해체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단일화, 획일화로부터 탈피하는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의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이 정리 하였다.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에 메이크업 패턴을 스케치 한 후 Yellow, Red, Orange, Pink, Purple, Blue, Green색의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다.
- ② 인조 수염에 Yellow, Red, Orange, Pink, Purple, Blue, Green색의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후 건조시킨다.
- ③ Yellow, Red, Orange, Pink, Purple, Blue, Green색으로 염색된 인조 수염을 각 각 다양한 길이와 방향으로 패턴에 맞게 스프리트겸을 이용해 붙인다.
- ④ 홀로그램 스팅글로 패턴 안쪽에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 ⑥ 레이스와 버클을 글루건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표 5> 작품 Ⅲ-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상호텍스트성
재료	아크릴물감, 인조 수염, 레이스, 버클, 스팅글
색채	



<그림 32> 작품 Ⅲ

4) 작품 IV



(1) 작품설명

작품 IV <그림 33>은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등장했던 투명한 비닐을 이용하였다. 반사와 투과의 기능을 갖고 있는 비닐로 된 에어캡을 마스크에 씌워 관찰자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반사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빛과 색의 원색을 사용하여 채색하고 에어캡에 액상을 주입함으로써 에어캡으로부터 투과되는 색과 채색되지 않은 부분에서 마치 채색 된듯하게 보여지는 액상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독립적,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병행, 인용하는 상호연관 형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V의 구성 내용은 <표 6>로 나타내었다.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에 패턴을 스케치 한다.
- ② Red, Yellow, Blue, Green, Black색 아크릴 물감으로 일부 패턴은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채색한다.
- ③ 마스크에 에어캡을 씌우고 글루건으로 고정한다.
- ④ 채색되지 않은 부분의 에어캡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Red, Yellow, Blue, Green, Black색의 액상을 주입한 후 목공용 풀로 주입된 입구를 막아준다.

<표 6> 작품 IV-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상호텍스트성
재료	아크릴 물감, 에어캡
색채	



<그림 33> 작품IV

5) 작품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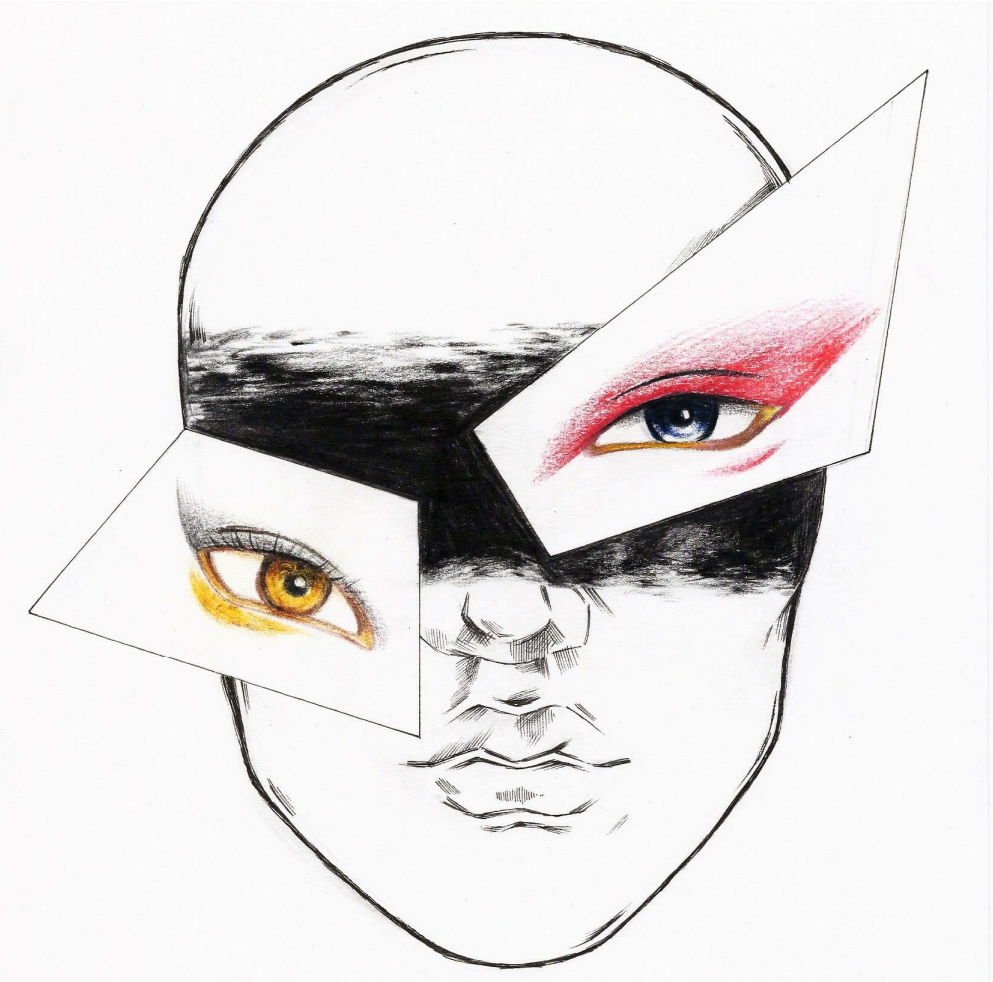

(1) 작품설명

<그림 34>의 작품 V는 의복의 조형개념을 이용하여 물형식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입체적인 형태를 평면으로 나타내었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2009년 작품에서 보여 지는 평면의 원단에 의복의 그림을 그린 것에 영감을 받아 입체적인 얼굴에 평면의 종이를 사용하였고 그 종이에 눈을 그려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냈으며 눈의 위치를 서로 달리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하였다. 또한 모델의 눈을 가려 작품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특징을 가져와 마스크의 눈 부분을 붓의 질감을 살려서 칠하여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상반되는 평면의 눈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의외적인 기발함을 추구하였다. 작품 V의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의 눈 부분을 Black색 아크릴물감을 이용하여 붓의 질감을 살려 칠해준다.
- ② White색 종이에 눈 그림을 스케치한다.
- ③ Pink, Gray, Orange, Blue, Brown색 색연필을 이용하여 눈 그림을 채색한다.
- ④ 눈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다각형 모양으로 잘라준다.
- ⑤ 잘라진 눈 그림의 종이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표 7> 작품 V-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물형식성
재료	아크릴물감, 종이, 색연필
색채	



<그림 34> 작품 V

6) 작품 VI



(1) 작품설명

작품 VI <그림 35>는 패션의 일반적인 재단과 구성법을 무시하여 부조화의 미를 나타낸 작품으로 원단과 지퍼를 드러내어 표현하였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인 제작과정을 밖으로 드러내어 의상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면을 표현하기 위해 원단의 솔기와 지퍼를 노출시켜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였고, 타원형태의 마스크를 비대칭으로 잘라냄으로써 마스크 자체의 형태도 변형시켰다. 잘라진 마스크 가장자리 부분에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보였던 색채의 원단을 덧대어 바느질하여 감추려고 했던 시접을 드러내어 미숙하고 조화롭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하여 파괴되고 허물어진 몰형식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VI의 구성 내용은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를 비대칭으로 잘라준 뒤 사포로 자른 면을 정리한다.
- ② 바늘을 불에 달구어 자른 면 쪽에 시침질 표현을 위해 구멍을 뚫어준다.
- ③ Ivory, Brown, Beige, Mustard색의 조각난 원단을 자른 면 안쪽에 대고, 바늘에 Blue색 실을 꿰어 구멍 난 부분에 바느질하여 원단을 고정시킨다.
- ④ 지퍼의 양쪽을 Pink색 실로 바느질한 후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표 8> 작품 V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물형식성
재료	원단, 실, 지퍼
색채	



<그림 35> 작품 VI

7) 작품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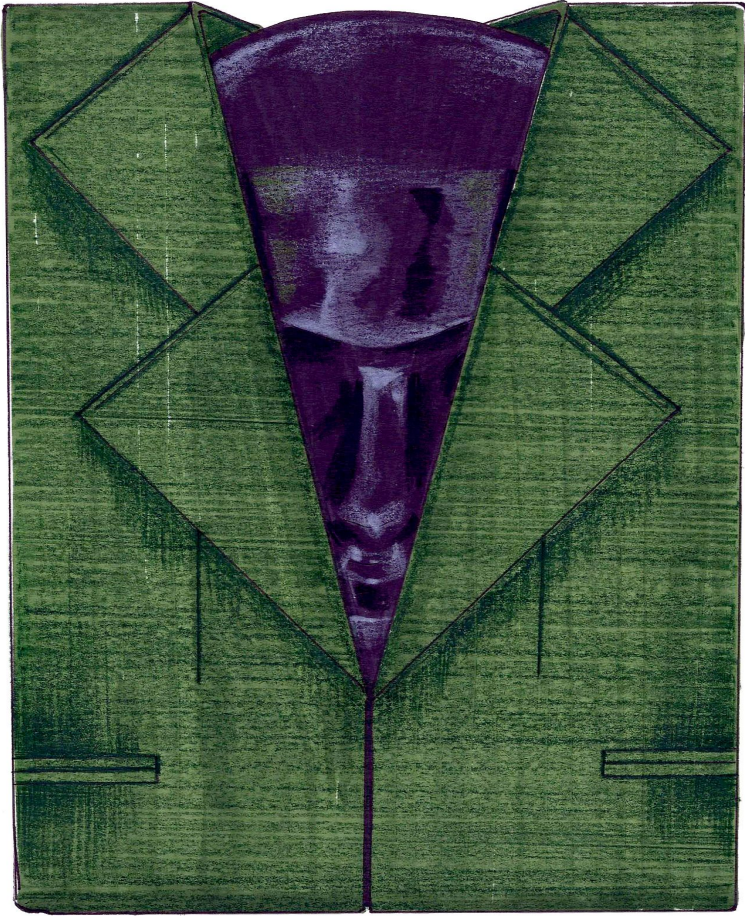

(1) 작품설명

<그림 36>의 작품 VII은 혼성모방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나타낸 작품으로써, 과거에 유행하였던 파워 숄더를 차용하여 복고적 요소를 표현하였고 2008년에 선보인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둥근 마스크의 형태를 무시한 채 각이 강조된 직선형태의 전위적인 재킷을 구성함으로써 마스크의 기존 형태를 왜곡하여 재킷의 과장된 표현을 극대화 하고 새로운 마스크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 신체 중 몸에만 착장되었던 재킷을 얼굴인 마스크에도 그대로 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VII의 구성 내용은 <표 9>로 나타내었다.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의 길이와 높이 등을 재어서 하드보드지에 재킷 패턴을 그린 후 자른다.
- ② 재킷의 카라를 제외한 패턴을 글루건을 이용해 고정시킨다.
- ③ 고정된 하드보드지에 모양을 잡아가며 Olive green색 원단을 씌운 후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 ④ 카라 패턴의 하드보드지에 모양에 맞게 Olive green색 원단을 씌운 후 글루건을 이용해 고정 시킨다.
- ⑤ Olive green색 원단을 씌운 카라를 먼저 만들어 둔 재킷 패턴 하드보드지에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 ⑥ 마스크에 패턴을 대칭이 되도록 글루건을 이용해 고정시킨다.
- ⑦ Black 색 펜으로 재킷의 주름과 주머니를 그려준다.

<표 9> 작품 V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혼성모방
재료	하드보드지, 원단
색채	



<그림 36> 작품 VII

8) 작품 VIII



(1) 작품설명

작품 VIII <그림 37>은 각각의 패턴을 이용하여 혼성모방을 나타낸 작품으로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각 패턴에 나타내었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마스크의 중앙 부분에 배치하고, 소수민족과 문화에서 보여지는 문양, 오브제 등을 주위에 배치함으로써 마스크를 하나의 지도로 표현하며, 이미지의 크기와 배치를 서로 다르게 하여 힘의 분배가 느껴지도록 제작하였다.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서 드러나는 패턴 짜깁기 방식을 가져와 마스크에 구성하였으며, 각 패턴에 소수민족과 부족의 문양과 오브제의 사용으로 민속성, 지역성,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각 문화의 특성이 서로 공존되는 경향을 표현하였다. 또 각각의 문화현상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생산물로 재창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VIII의 구성 내용은 <표 10>과 같다.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에 각각의 패턴을 스케치한다.
- ② White, Red, Blue, Yellow, Green, Black, Brown, Orange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채색한다.
- ③ Gold색 펜을 이용하여 문양을 그려준다.
- ④ 꽃과 큐빅 오브제를 사용하여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 ⑤ 큐빅이 박힌 끈을 마스크 가장자리에 둘러가며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 ⑥ 깃털을 마스크 뒤쪽에 배치하여 글루건을 이용해 고정시킨다.

<표 10> 작품 VI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혼성모방
재료	아크릴 물감, 큐빅, 레이스, 깃털
색채	



<그림 37> 작품Ⅷ

V. 결론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 여러 작품에서는 다양한 기법과 파격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전위적인 디자인이 도출되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재와 디자인의 등장으로 동일성, 일원성과 같은 보편적인 미의 추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융합을 활용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으로 접목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활용하여 아트마스크 디자인을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통합과 재해석을 통하여 범위와 재료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아트마스크 디자인 연구에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의 전환과 여러 시도를 이끌어 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전문 서적과 연구 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기법,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서 드러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활용하여 총 8점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가진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 II는 소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열린 시각을 나타내는 다원주의를 표현하였다. 작품 I은 메이크업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스타킹을 싹뿍 익명성을 드러내었고 마틴 마르지엘라가 2009년에 선보인 작품에서 나타난 속눈썹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마스크 양쪽에 뒤덮음으로써 한정된 소재의 기능성을 파괴하고자 하였으며, 작품 II는 리사이클링 기법을 활용하여 잡지를 재료로 사용하였고 오브제의 중첩과 모호한 경계로 새로운 형태를 완성하였다.

작품 III, IV는 경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여 수평적 관계를 유지

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여 무한히 확장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낸 작품이다. 작품 III은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소재인 수염, 레이스, 허리띠 등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파괴시켜 성의 혼합을 나타내었고, 작품 IV는 비닐로 된 에어캡의 투과와 반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다의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상호연관 형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V, VI은 미적 판단을 위해 성립되어 있는 기존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여 추(醜), 왜곡 등의 비정상성을 추구하거나 미숙하고 조화롭지 못한 상태의 허물어진 형식을 만들어 내는 몰형식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V는 평면의 원단에 의복의 그림을 그린 2009년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아트마스크에 적용한 것으로 종이를 이용해 눈을 평면적이면서 비대칭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인 얼굴을 조형개념을 파괴하였고, 작품 VI은 패션의 구성법을 무시하여 솔기와 지퍼 등을 노출시키고 타원형의 마스크를 비대칭으로 잘라내어 형태를 변형시켜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VII, VIII은 특정한 작품으로부터 스타일, 이미지 등을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하는 혼성모방을 빌려온다는 의미의 차용을 통하여 나타냈다. 작품 VII은 과거에 유행한 파워숄더를 차용하여 둥근 형태의 마스크를 사각 형태로 바꿈으로써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복고적 요소를 나타내었고, 작품 VIII은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차용해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되는 현상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재료와 색채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메이크업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조형미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아트마스크를 완성하였으며,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을 사

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작품 안에서 조형적 예술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미술 사조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디자인에 표현되고 발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더욱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트마스크 디자인이 선보여지길 바라며, 아트마스크를 비롯한 메이크업 분야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메이크업 영역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경지현(2002),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세계 연구”, 경희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진(2011), “21세기 패션에 표현된 미래주의”,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윤진(2005),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성향에 관한 연구: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다정(2002),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빈(2009),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몰형식성에 대한 리오타르의 숭고미학적 해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미(2012),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에 표현된 건축적 탈정형 공간”,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연(2008),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차용과 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희(2015), “헤어디자인에 표현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심준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의류학회, 32(5), pp.741-752
- 김소현(2013), “니트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2010

- 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3(2), pp.39-52
- 김아진(1998),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복식디자인 연구: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 레아 가와쿠보(Rei Kawakub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10),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0(2), pp.69-85
- 김영란(2010), “파워 숄더 룩의 패턴구조 분석”, 한국디자인학회, 23(4), pp.265-274
- 김예성(2002),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 8(2), pp.137-147
- 김옥동(1990),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호 텍스트성”, 서강영문학회, 2(0), pp.9-34
- 김옥동(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문학과 지성사
- 김주연, 이효진(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학회, 13(2), pp.300-313
- 김주용(2012), “Pina Bausch 작품의 다원주의적 특성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1990),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2012), “릭 오웬스(Rick Owens) 패션 작품의 디자인 요소 분석을 통한 스타일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김현주(2008),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1(0),

pp.41-54

김하정(2001), “현대 패션의 창조적 디자인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부터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효(1993), 테리다의 헤체철학, 서울;민음사

김혜정(2004).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애니메이션, 음악, 무대예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4(2), pp. 105-119

김희선(2004),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현신, 전해정(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24(4), pp.463-474

남미경(2012), “포스트모더니즘디자인에 미친 문화다원주의(Pluralism) 영향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8(3), pp.141-154

노미정(2005), “해체주의적 의상이 영화 속 캐릭터 표현에 미치는 효과:장 폴 고티에의 영화 의상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로버트 앳킨스(2003), 현대미술의 개념놀이, 서울;시공사

류태임(2005). “마르셀 뒤샹의 반예술정신 및 레디메이드에 관한 연구: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신애(200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신하(2005), “현대발레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정(2010), “현대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순, 손향미(2009), “현대 패션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혼성모방 표현양상 분석”, 대한피부미용학회, 7(4), pp.351-366
- 박동은, 양은진, 김설옥, 윤상미, 민정숙, 박은준(2012),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및 표현방법: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미용예술학회, 6(4), pp.231-243
- 박선신(2005),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를 응용한 작품제작연구-해체주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6), “포스트모던 알레고리 이미지 패션의 다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마틴 마르지엘라 패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선(2007), 색채용어사전, 서울;예림
- 박은경(2006),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2014), “업사이클링 리디자인 의상 개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민(2005),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희(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脫)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영희, 채금석(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Anti Couture 경향 연구”, 한국 의류학회, 33(7), pp.1098-1108
- 서지윤(2015), “앤디워홀 작품의 대중성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혜미(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醜)의 미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미화(2013), “모더니즘의 조형성을 활용한 퓨전한복의 디자인연구: 한지 사 직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향미(2002), “현대의 뷰티 및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pastiche) 분석: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복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스티븐 파딩, 하지은 역(2007),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서울:마로니에북스
- 신기철, 신용철(1991),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삼성출판사
- 신나리(2015),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환(2004),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살림출판사
- 신정임(2008),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혼성모방(混成模倣)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선(2005), “포스트모더니즘 회화 연구: 미국의 뉴 페인팅 작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학미(1998),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보경(2009), “1990년대 이후 한국연극의 무대의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월간미술(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월간미술
- 윤진아(2006), “여자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패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계영(1997), “현대미술의 다원주의적 경향과 통합예술적 관점에 의한 환경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이(2000), “샤넬컬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래, 심명숙(2009), 미술의 종말과 엔드게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해체주의까지, 서울;미술문화
- 이나래, 박소연, 김지영(2011), “해체주의 디자이너 작품을 통한 의상 디자인 창작”,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5(1), pp.99-110
- 이돈희(2002), “미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재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술(2009), “매니쉬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디자인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령(2014),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예술 장신구의 경향”, 한국조형디자인학회, 17(3), pp.75-94
- 이은경(2002), “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 한국생활과학회, 11(3), pp.287-299
- 이재정, 박신미(2011), 패션, 문화를 말하다:패션으로 20세기 문화 읽기, 서울;예경
- 이지연(2011), “한국화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198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이술, 노윤선(2011), “매니쉬(mannish)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 을 통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1(3), pp.47-60
- 이합 핫산, 정정호 역(2007), *포스트모던 문화와 문학*, 서울;신아사
- 임소영(2003), “장 폴 고티에 패션디자인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임, 이연희(2006), “Martin Margiela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한국니트디자인학회, 4(1), pp.64-77
- 정수영(2011),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한(2013), “20세기 팝 아이콘 마릴린 먼로-앤디 워홀의 영향과 동시대 한국미술에서의 재해석”, 한국기초조형학회, 14(6), pp.333-341
- 정효미(2012), “마르셀 뒤샹의 예술세계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정(2008), “Jean Paul Gaultier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 6(2), pp.119-128
- 조쌍미(2003), “벨기에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현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2011), “벨기에 패션의 네오아방가르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존 A. 워커, 정진국 역(1994),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서울;열화당
- 존 레웰린, 서우석 역(1993), *데리다의 해체주의*, 서울;문학과 지성사
- 존 워커, 장선영 역(1998), *매스미디어와 미술*, 서울;시각과 언어
- 주선화(2012),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형적 형태를 이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경옥, 박민여(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한국복식학

- 회, 50(5), pp.143-157
- 진중권(2013),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후기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편, 서울;휴머니스트
- 최민령, 김유미, 김희정, 임소정, 김기영(2009).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작품 표현연구”, 한국색채학회, 23(4), pp.117-124
- 최영옥(2002), “Jean Paul Gaultier 작품에 나타난 외적 해체경향”, 한국의류산업학회, 4(4), pp.327-338
- 최영옥(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5(5), pp.453-464
- 최영주(2006),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2:인문학편, 서울;휴머니스트
- 최예진(2010),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대중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은(2000), “데 스틸의 조형원리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환(2010), “현대 미술의 형식 차용 연구:본인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와 패스티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전연구소(1998), 미술대사전 v.1 용어편, 서울;사전연구소
-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이(201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상과 패러디를 통해 본 미의식의 변화연구:본인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헤럴드 오즈본(2001), 옥스퍼드 20세기 미술 사전, 서울;시공사
- 현수정(2010), “마르셀 뒤샹 작품에 나타난 앤드로지니의 차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성아(2007), “레디메이드 오브제와 생애를 통해 본 마르셀 뒤샹(M. Duchamp)의 예술세계”,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원(1998), “패러디 표현방법을 통한 광고에 있어서 창조와 모방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선(2002), “20세기 이후 실내디자인과 패션에 있어 조형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히엘 데이비스, 박지호 역(2012), 디자이너의 패션북, 서울;1984

국외문헌

Ian Luna(2009), “Masion Martin Margiela”, Newyork;Rizzoli

인터넷 자료

김선주(2015), “해체주의로 관습에 도전한 이단 ‘마틴 마르지엘라’, 패션 역사의 한 장을 쓰다”, 한국경제, (기사일자, 2015.1.11.), [http://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32247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322471)
마르셀 뒤샹(1917), “샘”, (검색일자, 2015.4.17.), <http://www.vival00.com/main/view.php?key=20150308010001191>
마르셀 뒤샹(1951), “자전거 바퀴”, (검색일자, 2015.5.31.), <http://www.artmk.kr/artmk/archives/4875>
마틴 마르지엘라(1989-1990), “A/W 1989-1990”, (검색일자, 2015.5.12.), <https://www.pinterest.com/pin/70016969178097244/>
마틴 마르지엘라(2003), “2003 Spring Paris”, (검색일자, 2015.5.22.), <http://www.stylebistro.com/runway/Maison+Martin+Margiela/Paris+Fashion+Week+Spring+2003/rL4Q8neS41j>
마틴 마르지엘라(2006-2007), “2006-2007 A/W Paris”, (검색일자, 2015

- .5.18.),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06/ready-to-wear/martin-margiela/full-length-photos/gallery/170083>
- 마틴 마르지엘라(2007), “2007 S/S Paris”, (검색일자, 2015.5.22.),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7-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16>
- 마틴 마르지엘라(2008), “2008 Fall Paris”, (검색일자, 2015.5.12.),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8-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19>
- 마틴 마르지엘라(2009), “2009 Fall”, (검색일자, 2015.5.18.), <http://www.popsugar.com/fashion/Martin-Margiela-Goes-Artisanal-Pen-Caps-False-Eyelashes-Fall-2009-Couture-3450878#photo-3450928>
- 마틴 마르지엘라(2009), “2009 S/S Paris”, (검색일자, 2015.5.12.),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8>
- 마틴 마르지엘라(2009), “2009 S/S Paris”, (검색일자, 2015.5.18.), <http://www.filemotwary.com/motwary/2009/01/maison-martin-margiela-artisanal-ss09-couture.html>
- 마틴 마르지엘라(2009), “2009 S/S Paris”, (검색일자, 2015.5.18.),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full-length-photos/gallery/324794>
- 마틴 마르지엘라(2009), “Fall 2009 Paris”, (검색일자, 2015.5.12.),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9-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3>
- 마틴 마르지엘라(2009), “S/S 2009”, (검색일자, 2015.5.18.), <http://www.inspirationgreen.com/oneofakindclothes.html>

- 마틴 마르지엘라(2010), “2010 A/W”, (검색일자, 2015.5.18.), <http://www.vogue.com/870896/vd-couture-2010-martin-margielas-artisanal-line/>
- 마틴 마르지엘라(2010), “2010 Fall Paris”, (검색일자, 2015.5.18.),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10-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collection/39>
- 마틴 마르지엘라(2011-2012), “2011-2012 A/W Paris”, (검색일자, 2015.4.3.),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couture/maison-martin-margiela/full-length-photos/gallery/640063>
- 마틴 마르지엘라, “8개의 양말로 만든 블라우스” (검색일자, 2015.5.21.), <http://20x20.tistory.com/164>
- 마틴 마르지엘라, “여행용가방으로 만든 재킷” (검색일자, 2015.5.22.), <http://www.elle.com/runway/spring-2007-couture/g5358/maison-martin-margiela-160096/>
- 삼성디자인넷, “포스트모더니즘의 개관”, (검색일자, 2015.4.20.), http://www.samsungdesign.net/History/Art/ArtHistory/content.asp?an=30044&conn_seq=001&glChk=&block=&page=&cnt=&keyword=%C6%F7%BD%BA%C6%AE%B8%F0%B4%F5%B4%CF%C1%F2
- 알렉산더 맥퀸(2001), “2001 F/W Paris”, (검색일자, 2015.4.29.),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fall-2001-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59>
- 알렉산더 맥퀸(2005), “2005 S/S Paris”, (검색일자, 2015.4.29.),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05-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33>
- 장 폴 고티에(2010), “2010 S/S Paris”, (검색일자, 2015.4.29.), <http://www.style.com/slideshows/fashion-shows/spring-2010-menswear/jean-paul-gaultier/collection/36>

장 폴 고티에, “마돈나 의상”, (검색일자, 2015.4.29.), <http://cultmagazine.com.au/2014/10/jean-paul-gaultier-celebrated-national-gallery-victoria>

최지영(2014), “[브랜드스토리] 얼굴 없는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 스타일뉴스, (검색일자, 2014.9.23.), <http://www.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

최지영(2014), “얼굴 없는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 스포츠투데이, (기사일자, 2014.9.24.), <http://bit.ly/1yq4bsy>

ABSTRACT

A Study on the Works of Art Mask Applying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Kim, Yu Kyung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Modern society suggests new axiology out of standardized and formalized traditional practice over whole the art line, reaching a new wave such as informatization with highly developed industrialization and mass media. Due to this fact, 'Postmodernism' appeared, which is the most typical thought trend looking for various value systems that the position has been reversed against a single system in the art line. Postmodernism successes to and develop modernism at the same time, rose above and overcame the limitation of modernism, destroyed existing practice and dismantled identity and monism to bring opening attitude for various forms and identities. At the present times, Postmodernism appears several styles in several genres such as literature, architecture, music, dance, fashion and movies; it shows new design interpretation together with several fields but certain difficulty

exists in suggesting the value of art together with makeup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verage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reveals the work of the fashion designer Martin Margiela's art by making art masks with make-up design, through the fusion between the various art genres, mask design development creating an opportunity to try a variety of figurative art i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make-up sector.

The author established a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consideration of documentations and analysis of prior essays, and produced the works suitable for Martin Margiela's works and postmodernism, making use of several materials and modeling methods.

The result of study is explained as next.

First, the author found the idea of postmodernism and classified a property that is applicable for design concept into pluralism, intertextuality, disformation and pastiche. Also, the author comprehended how postmodernism interacts with the public through fine art and fashion, and confirm certain developmental possibility through convergence among several genres.

Second, the author found out Martin Margiela's activities, provided his faith to others and explained it with criticism of commercialization through anonymity. Also, the author explained whole the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through recycling fashion which is his main method. With the base of this concept and characteristic, the authors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his works, dividing it into pluralism, intertextuality, disformation and pastiche.

Third, the characteristic of postmodernism applied researching result of art mask is as follows.

Works I expressed the pluralism represented the diversity of anonymity and materials by superimposing stockings and eyelashes that is the materials of Martin Margiela's works.

Works II exhibited pluralism using the magazine as a recycling technique utilizing multiple forms coexist together.

Works III expressed intertextuality presenting the mixing property of sex with objects such as beard, lace and belt.

Works IV showed intertextuality through induce multi-meanings analysis by the viewer by using the transmission and refl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air cap, and a plastic material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orks V expressed disformation by destroying the concept of facial plastic molding such as destroying the concept of clothing, placing 2 dimensional and asymmetrical eyes.

Work VI has revealed disformation by using seam and zippers ignoring the composition of fashion as objects and by presenting incompleteness and disharmony.

Works VII expressed a pastiche by borrowing a fashionable shoulder power to destroy the stereotypes of the past and by changing the mask shape to a rectangular shape and rounded retro elements.

Works VIII will work with the images that appear in many cultures ethnicity, locality, traditionality such as cultural diversity represented a

phenomenon that appears different cultures co-exist with each other as a pastiche.

This study showed that art zeitgeist and fashion, art mask areas of convergence culture blends with new art can be represented as a one-off beyond the limits and scope of the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with a permanent art exhibition, art mask design study based on the ideas and creativity of new ideas made by various attempts to give an opportunity to the parties.